

“지휘 대신 피아노 연주 무대 영광이죠”

홍석원 광주시향 예술감독

3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단원들과 모차르트 실내악 연주

“윤이상 ‘광주여 영원히’ 녹음 의미”



지난 11일 광주시향 연습실에서 연습 중인 홍석원 감독(왼쪽 2번째)과 수·차석 단원들. <광주시향 제공>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가 피아노 연주자로 무대에 서는 것은 드문 일이다. 특히나 전문 연주자 출신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31일 광주시향 실내악 시리즈 II ‘Quartet in G minor’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공연에 피아노 연주자로 무대에 오르는 홍석원 광주시향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홍 감독은 이날 박신영·정수자·최승욱 등 시향 수·차석 단원들과 ‘모차르트 피아노 4중주 1번 G단조’를 연주한다. 공연을 앞둔 지난 11일 홍 감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전문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관객,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대에 선다는 것이 쉽지않은 않았습니. 시향은 시민을 위한 연주단체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의 기준은 시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있는 무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휘자가 아닌 피아노 연주자로 무대에 설 수 있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홍 감독의 피아노 데뷔(?) 무대는 관객들에게 좀더 신선하고 참신한 무대를 보여주자는 의의가 모아진 데서 시작됐다. 서울대에서 작곡과 지휘를 전공한 홍 감독이지만 기본적으로 피아노 연주실력을 갖췄다. 학부시절 피아노 수업을 이수하기 때문인데 홍 감독은 나름 괜찮은 피아노 성적을 기록했다고 했다.

홍 감독은 공연 일정이 정해진 을 초부터 터나는 대로 개인 연습시간을 갖고있다. 레퍼토리 ‘모차르트 피아노 4중주 1번 G단조’는 홍 감독과 단원들의 함께 정했다. 모차르트는 장조 곡을 많이 썼던데라 그의 단조 음악은 특별한 특별하다. 물론 전문 연주자가 아닌 홍 감독을 배려한 면도 없지 않다.

홍 감독과 수·차석 단원들은 지금까지 6차례 정도 함께 연습시간을 가졌다. 홍 감독은 연신 자신의 실력에 겸손함을 보였지만 함께 무대를 갖는 첼리스트 최승욱(수석단원)은 “감독님 실력에 생각보다 놀랐다. 감독님이 피아노 협연자가 올 때마다 피아노로 리딩을 하신다는 걸 알고 당연히

피아노 실력이 높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함께 연주를 해보니 깜짝 놀랄 만한 실력이었다”고 말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신영(수석단원)은 “감독님이 피아노에 이렇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 함께 해보니 연주 욕심도 있으신 것 같다”며 웃었다. 이어 “예술감독과 합주해본 경험이 없는데, 색다른 경험이다. 여타 감독들과는 달리 겸손하고 배려가 많은 감독이다. 광주시향 옹호에 있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명의 단원은 2바이올린의 홍의정과 함께 그리그의 ‘현악사중주 1번 G단조’도 들려줄 예정이다.

홍 감독은 지난 2021년 2월 광주시향 제 13대 감독으로 취임했다. 코로나19와 대극장 리모델링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서울 교향악축제에 통해 광주시향의 수준을 전국에 알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 감독은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틈틈이 선보이고 있다. 쇼스타코비치와 광주와의 닮은 점 때문이다.

“쇼스타코비치는 스타린 시대 인간의 자유를 노래한 당시 반체제적인 작품이 많아요. 그의 작품이 5·18, 광주 역사의 아픔이 전해진다고 할 수 있죠. 특히 그의 교향곡 15개 가운데 11번은 5·18민중항쟁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곡을 연주하고 싶지만 연주단체가 많지 않은 지역 특성상 시민들에게 브람스, 베토벤, 모차르트와 같은 대중적인 곡들도 들려드려야 한다는 책

임도 있죠.”

홍 감독의 방 안에 놓인 그랜드피아노 위에는 쇼스타코비치 관련 도서가 여럿 놓여있었다.

광주시향은 오는 10월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이다.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리는 초청 무대. 사실 이번 공연은 피아니스트 임윤찬과의 협연 무대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지만 홍 감독과 시향에게는 이와는 다른 의미의 공연이다.

“윤이상은 한국인 중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곡가입니다. 특히 그가 5·18민중항쟁에 대해 듣고 작곡한 ‘광주여 영원히’를 그의 고향인 통영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좋은 음악홀에서 연주, 녹음까지 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광주를 영원히’를 검색하면 외국 오케스트라만 조회돼 안타까웠어요. 광주시향으로서 ‘광주를 영원히’만큼은 의무감을 가져야 하는 곡이라 생각합니다.”

광주시향은 하반기 일정은 광주시민들에게 한층 품격 있는 무대를 선보이기 위한 고민이 었보인다. 9월 17일 정기연주회 무대에 함께 오르는 폴 루이스와는 리스트의 곡을 연주한다. 11월 19일에는 플루티스트 윤혜리, 12월 23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함께 한다.

홍 감독 “광주시향 단원들의 수준 높은 연주 실력과 음악에 대한 욕심과 열정에 큰 인상을 받았다”며 “모시기 힘든 세계적인 연주자들과의 공연을 많이 준비했다.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임영웅 “평생 기억 남을 콘서트” 트로트 가수 최초 12월 고척돔 무대



광복절 연휴 서울 공연

‘아임 히어로’ 전석 매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 음원 차트 줄 세우기, 트로트 곡으로 십수 년 만에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 솔로 가수 사상 최초로 발매 첫 주 음반 판매량 100만장(한터차트 기준) 돌파...

가수 임영웅이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 우승 이래 불과 2년 만에 쌓은 ‘급자탑’은 대중 추려도 이 정도다. 방송가와 광고계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은 점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다.

한여름의 열기가 여전했던 이번 광복절 연휴, 임영웅은 자신의 가수 여정에서 또 한 번의 이정표를 세웠다. 첫 단독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 (IM HERO) 서울 콘서트다.

그는 지난 5월 경기 고양을 시작으로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를 돌며 흥행 파위를 과시했다.

이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서울 공연은 전국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동시에 ‘K팝의 성지’로 불리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전석 매진으로 입증했다는 의미를 지녔다.

임영웅은 이날 공연에서 12월 부산 벡스코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여는 전국투어 앙코르 콘서트 계획도 공개했다. 트로트 가수가 수송 인원 2만 명에 육박하는 고척스카이돔에 입성하는 것은 그가 최초다.

이날 공연장은 임영웅을 상징하는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영웅시대’ (임영웅 팬)로 가득차고,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영웅’을 기다렸다.

국내뿐 아니라 호주, 일본, 독일, 홍콩 등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예매 전쟁을 벌이고 티켓을 구하는데 성공한 팬들이 집결했다. 관객 연령대는 8세부터 90대 어르신까지 다양했다.

‘임영웅 고마워 내 생명 다하는 나까지 함께 가자’, ‘오늘도 영웅에게 취한다’처럼 재치 있는 문

구가 적힌 피켓도 눈에 띄었다.

장내가 압전되고 공연 시간을 알리는 6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전광판 속 숫자가 1까지 내려가고 주인공 임영웅의 모습이 담기자 장내는 ‘와’하는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임영웅은 라이브 밴드의 연주에 맞춰 ‘보금자리’를 시작으로 ‘사랑해요 그대를’·‘사랑역’ 같은 1집 수록곡을 비롯해 ‘바람’ 같은 ‘미스터트롯’ 경연곡을 들려줬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특유의 깔끔한 보컬로 시원한 고음을 쭉쭉 뻗어냈고, 과하지 않은 손짓으로 관객들을 지휘했다. 업 템포 곡을 부를 때는 전주와 간주를 이용해 숨겨 놓은 춤 실력도 뽐냈다.

임영웅은 팬 서비스도 히어로다웠다.

그가 “한번 나가볼까요”라며 T자형 돌출무대 앞으로 나오자 더욱 가까워서 마주하게 된 팬들은 환호했다. 임영웅은 팬 한명 한명과 눈을 마주치고, 각각 언어로 적힌 피켓 문구도 읽어줬다. 노래가 끝나고서는 손으로 하트도 만들어 보였다.

임영웅은 “저도 평생 기억에 남을 콘서트를 위해 오늘이 한 몸을 불살라보도록 하겠다”며 “나도 표를 사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내가 할 때는 대가자가 욕심많은 명이었는데 팝십일만까지 기록했다더라. 대기 시간은 153시간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또 “최근 엄청난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분이 있을 텐데, 어려움 겪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영웅시대’ 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공연) 시작해보려 한다”며 “복구를 위해 힘써 주시는 우리 사회의 많은 히어로들이 있다. 히어로분들께도 위로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고도 했다.

드라마 OST로 삽입돼 히트한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의 콜센타’에서 선보인 ‘비와 당신’, 부캐(부캐릭터) 임영광과 듀엣으로 꾸민 ‘이동명의 편지’, 1집 수록곡 ‘사랑해 진짜’ 등이 이어지면서 공연장은 더욱 후끈 달아올랐다.

임영웅은 3시간이 넘는 공연 시간을 트로트,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한 장르로 꽉 채웠다.

/연합뉴스

세월호재단, 전국 4.16 독서감상문 공모전

4·16재단(이사장 김광준)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제2회 전국 4.16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4·16세월호참사 3000일을 기억하고 사회적 재난 참사와 관련한 서적을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

다.

대상 도서는 ‘다시 봄이 올 거예요’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창비) ‘홀 :어느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 (김홍모·창비), ‘이 폐허를 응시하라’ (레베카 솔닛·판타그램) 등 총 3권이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양식을 내려받아

청소년부의 경우 A4기준 2~3매, 일반부는 3~5매를 작성하여 이메일(pr@416foundation.org)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오는 11월 17일, 시상식은 12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청소년부 및 일반부 각 부문별 대상(각1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모두 16명에게 시상한다. 문의 070-4941-308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나주시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함도그1개 1000원 치즈함도그1개 1500원, 참쌀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동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자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라미 소스,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성내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터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음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한국기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